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www.danojefestival.or.kr

신라시대인류무형문화유산인강릉단오제
2025강릉단오제
5.27.화 ~ 6.3.화

스무살 단오



2025 강릉단오제

신통대길
길놀이



2025. 5. 29(목) 19:40
(성내동광장 사전공연 19:00)



새강릉단오제위원회

국가무형유산
새강릉단오제보존회



강원특별자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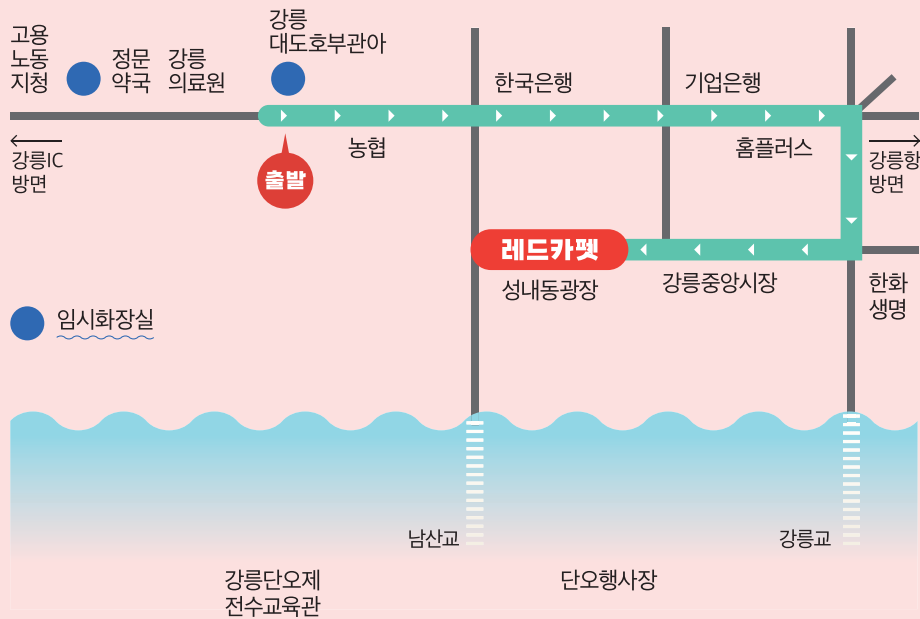


신통대길(神通大吉) 길놀이

강릉단오제보존회 주관하에 강릉단오제의 주신을 단오장 내 굿당으로 모시는 영신행차를 선두로 진행됩니다. 그 뒤를 따라 강릉시의 21개 읍·면·동 주민들이 마을별 특색을 담아 다양한 주제로 개성 넘치는 퍼레이드를 이어갑니다.

2025 신통대길 길놀이 코스

강릉대도호부관아(출발) > 옥천 오거리 > 금성로
> 성내동 광장(레드카펫 3분 퍼포먼스)



길놀이 대기 구간 화장실 개방(18:00-21:00)

- 강릉의료원 <정문화장실>(강릉시 경강로 2007)
- 작은공연장단(강릉시 경강로2046번길 5)
- 명주예술마당(강릉시 경강로2021번길 9-1)
- 대도호부관아 화장실(강릉시 명주동 39)

2025신통대길 길놀이는 강릉시 읍·면·동 21개, 사전 공연팀을 포함해 일반기관·단체 16개, 총 37개 팀이 참여합니다.



contents

- 04 신통대길 길놀이 사전 공연팀
- 06 신통대길 길놀이 참여기관·단체
- 09 신통대길 길놀이 마을별 소개
 - 구정면 / 연곡면 / 옥계면 / 성산면 / 왕산면
 - 강동면 / 주문진읍 / 사천면 / 성덕동 / 송정동
 - 초당동 / 옥천동 / 교2동 / 교1동 / 포남2동 / 흥제동
 - 내곡동 / 강남동 / 중앙동 / 포남1동 / 경포동
- 30 영산홍 악보

신통대길 길놀이 행렬 순서

영신행차(강릉단오제보존회)/사천하평답교놀이보존회 → 기관단체장 → ICCN총회 대표단 → 국외초청단(라트비아, 슬로바키아) →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 강릉글로벌 외국인팀 → 강릉대학연합 외국인학생단 → 강릉시한복문화창작소 → 강릉시청 → 강릉농악보존회 → 구정면 → 연곡면 → 옥계면 → 성산면 → 왕산면 → 강동면 → 주문진읍 → 사천면 → 성덕동 → 송정동 → 강릉그린실버악단 → 초당동 → 옥천동 → 교2동 → 교1동 → 포남2동 → 흥제동 → 내곡동 → 강남동 → 중앙동 → 포남1동 → 경포동

신통대길 길놀이

사진 공연팀



강릉시 체조협회

김경희 회장을 비롯해 실용댄스, 줌바, 휘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각 체조분야의 이사로 구성된 단체로, 생활체조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1995년 3월 창립 이래 강원특별자치도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이번에 강릉단오제를 축하하고자 시민이 함께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예술모델교육 협회

기술과 소양을 갖춘 전문 모델인을 양성하고, 시니어워킹 클래스를 구축하는 등 도내 시니어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이다. 국내 모델문화와 역사가 담긴 스토리텔링으로 다양한 세대를 거치는 패션 변천사를 선보임으로써 패션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라온합창단



퇴직 여교원들과 노래를 사랑하는 남성으로 구성된 혼성합창단으로, 2021년 7월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래가 있는 삶을 통해 행복한 인생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40명의 단원들이 모여 은빛 인생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2023강릉세계합창대회 혼성시니어합창부문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둔 실력파 합창단이다.

프리모어린이합창단

2007년에 창단해 연 2회의 정기연주회와 다양한 기획 연주, 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는 음악회 등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연주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주단체로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국립합창단과의 협연을 비롯해 오페라와 뮤지컬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어린이 합창단이다.



강릉시립합창단



강원특별자치도 영동권 최초의 합창단으로 1992년 5월에 창단해 다양한 공연을 통해 강릉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전문 시립단체의 역할을 해왔다. 음악으로 강릉시민들에게 최고의 휴식과 여유를 선물해 온 강릉시립합창단은 예술음악이 가지고 있는 순수함을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합창음악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천하평담교놀이보존회

강릉에 전해져 내려오는 쯤상날의 민속놀이이자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사천하평담교놀이를 전승해 온 단체로, 2001년 제42회 전국민속예술 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강릉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알리고 있다.



ICCN 총회 대표단



강릉단오제 기간 중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무형유산, 세계인의 가치가 깃들다’를 주제로 제10차 국제무형 문화유산도시협의회(ICCN) 총회를 개최, 프랑스·라트비아·슬로바키아·인도·홍콩·네팔·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의 ICCN 회원 도시와 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며, 한국에서는 정선군이 함께 한다.

국외초청단

라트비아 민속의 뿌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야스미나스 합창단(Jasminas Choir), 슬로바키아 테르초바 지역의 전통 음악을 현대에 계승하고자 결성된 차즈카 무지카 즈 테르호베이(Ťažká muzika z Terchovej) 등 이국적인 매력을 뽐내는 공연단이다.



한국예총 제주도연합회

제주 지역 예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예술문화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4월 29일 창립했으며, 10개 회원단체 및 1개 지회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예술인들이 복지 향상사업들을 매년 기획, 운영하고 있다.

강릉글로벌 외국인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구성된 팀이다. 이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강릉단오제를 직접 체험하며,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강릉대학연합 외국인학생단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등 강릉 관내 4개 대학의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통해 강릉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강릉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세계적인 축제를 즐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강릉시한복문화창작소



2023년부터 교육, 전시, 문화행사, 연구 등 다양한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는 단체이다. 이번 길놀이에서는 한복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강릉 인물을 그리고 예복, 평상복, 신한복 등 다양한 복식을 선보이면서 강릉의 멋과 한복의 변천을 느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강릉시청



2025년 강릉시의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여 강릉시청 공무원 70명이 길놀이에 참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 승격 70주년의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

강릉그린실버악단



평균 연령 70세 이상의 음악애호가 5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로, 1998년 10월 창립되었다. 대중가요와 클래식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소화하며 그동안 국내외에서 1,300여회에 걸쳐 공연을 펼쳐왔다.

강릉농악보존회

국가무형유산인 강릉농악을 계승·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지역 민속예술 전승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통문화의 정신과 예술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신통대길 길놀이

마을별 소개

구정면

강릉단오제의 주신 '범일국사' 탄생지로,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학산오독떼기를 비롯해서 국내 최대의 굴산사지 당간지주 등 많은 유·무형 문화유산을 보유한 유서 깊은 마을이다.



58살 국가무형유산,
20살 인류무형문화유산(유네스코)

길놀이 스토리

구정면과 강릉단오제는 대관령국사성황신이 된 '범일국사'라는 인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강릉단오제의 뿌리를 품은 구정면은 범일국사 탄생설화에 등장하는 학을 형상화한 춤과 각 마을의 상징과 유래를 알리는 화합의 행진으로 구정면의 정체성을 알리고자 한다.

관전 포인트

오방색 천으로 표현하는 흥겨움과 단합의 퍼포먼스

연곡면

맑고 깨끗한 계곡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마을로, 대표특산품인 딸기가 유명하다. 특히, 울곡 이이 선생이 금강산의 아름다운 비경을 지녔다고 극찬한 소금강을 품고 있다.



물 맑은 계곡과 은빛 해변이 만나는 천혜의 휴양지, 연곡면

📖 길놀이 스토리

조선 성리학의 거목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 AI 기술로 복원한 울곡 이이 선생이 눈앞에서 소금강의 매력을 전한다. 울곡 이이 선생이 저술한 ‘유청학산기’ 내용에 따라 LED 전광판 위에 펼쳐지는 천혜의 휴양지인 연곡면의 절경은 보는 이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 관전 포인트

귀여운 딸기 소품으로 연곡면의 특산품 알리기

옥계면

산과 바다를 두루 품은 강릉 최남단 마을로, 소도시·농촌·어촌·공장지구 등이 분포돼 있어 주민들의 생활 구조가 다양하다. 서핑 스팟으로 떠오른 금진해변을 끼고 있어서 힐링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미래교역의 중심, 북방물류의 중심지 옥계항

📖 길놀이 스토리

1960년부터 1980년대를 거쳐 2000년대까지 농업, 어업, 광산업 중심지 옥계의 변천사가 한눈에 펼쳐진다. 각각의 시대별 의상을 입은 주민들과 국제 북방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난 옥계항을 상징하는 컨테이너 조형물이 옥계면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이야기를 전한다.

💡 관전 포인트

주민들의 단합이 엿보이는 떼창과 군무

성산면

강릉단오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목 행차가 가장 먼저 들르는 곳으로, 신을 맞이하는 의식인 영신 햇불놀이 전통과 우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용물달기' 전통을 이어가는 마을이다.



신이 보우하사 “성산만세 만만세”

길놀이 스토리

성산면 건금마을에서 전해져 오는 '용물달기'를 재해석한 놀이를 통해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주신 대관령국사성황신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바탕 축제를 펼친다. 하늘의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 용의 모습을 생생히 구현하며 모두의 행운과 안녕을 기원한다.

관전 포인트

음양오행을 상징하는 오방색 천으로 펼치는 화려한 퍼포먼스

왕산면

고랭지 채소와 감자, 친환경 쌀, 향긋하고 씹새로운 개두름이 유명한 농업지대로, 척박한 자연을 개척한 화전민 정신이 살아있는 마을이다.



멧돼지 사냥 재현 놀이

길놀이 스토리

강릉의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나타났다! 예부터 왕산면에서 행해지던 멧돼지 사냥 풍습을 재현한 퍼포먼스로 강릉의 거리가 한바탕 들썩인다. 나무로 만든 스키와 설피를 신고, 주르먹에 창을 들고 눈밭을 누비며 멧돼지를 쫓던 과거의 모습이 현실에서 그대로 펼쳐진다.

관전 포인트

화전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소품들

강동면

백두대간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코발트블루 빛깔의 바다가 치마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마을이다. 해돋이와 바다, 연꽃, 단경골, 감나무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다.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정감 넘치는 우리 마을! 강동!

📖 길놀이 스토리

강동면의 명물인 '감'의 의인화! 노란색 옷과 주황색 모자를 쓴 주민들이 강동면 댄스를 선보이며 마을의 특산물을 알린다. 각 마을의 관광명소를 홍보하는 배너가 농악대의 신명 나는 장단에 맞춰 훑날리고, 주민들이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며 어깨춤을 추는 강동의 '감동'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 관전 포인트

해돋이 바다를 닮은 황금빛 물결

주문진읍

동해안 최대 어항 중 하나로 대게, 오징어 등 다양한 해산물이 풍부한 수산시장과 전통 재래시장이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발걸음하는 곳이다. <도깨비>와 <더글로리> 등 다수의 작품이 촬영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마을이다.



용왕님께 드리는 만선의 기도

📖 길놀이 스토리

매년 정초에 성황당에 제를 올리며 한 해의 안녕과 만선을 기원하던 풍습을 바탕으로, 가족을 위해 먼바다를 나간 남편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는 아내의 이야기를 길 놀이에 녹여냈다. 우렁차게 '만선이다!'를 외치며 돌아오는 남편을 반기는 아내와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 어촌민의 삶과 공동체의 미덕이 담겨있다.

💡 관전 포인트

어촌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길놀이 행렬

사천면

딸기, 감자, 쌀, 개두름, 한과 등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넓은 평야와 바다가 한데 어우러져 있는 만큼,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다. 매년 즙상날마다 풍년을 기원하는 사천하평답교 놀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스무살 단오, 우리가 주인이다

길놀이 스토리

사천면에 전해져 내려오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사천하평답교놀이’를 모티브로 주민들이 펼쳐 보이는 신명 나는 놀이 한마당! 매년 즙상날 술문을 만들어 불을 밝히고 하늘의 별을 보며 한 해의 풍년을 점쳤듯이 레드카펫 위에 다리를 놓고 햇불놀이를 벌인다.

관전 포인트

관객들을 위해 랜덤으로 진행되는 ‘한과’ 나눔 이벤트

성덕동

신라 화랑의 다도 유적지인 한송정을 비롯해서 빼어난 풍광과 역사를 자랑하는 유서 깊은 마을로, 공업·농업·어업 등이 발달한 복합지역이다. 1998년 입암동, 병산동, 청량동, 두산동, 학동, 남향진동 6개의 법정동이 ‘성덕동’이라는 행정동으로 통합됐다.



신라 화랑의 현대로의 타임슬립

길놀이 스토리

성덕동에 자리한 한송정은 차를 마시며 풍류를 즐겼던 화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성덕동 주민들은 과거에서 현대로 타임슬립한 화랑의 모습을 구현함으로써 과거의 화랑에서 오늘날의 공군으로 이어지는 화랑의 정신을 되새기고, 작은 원들이 하나의 큰 원이 되는 퍼포먼스를 통해 화합하는 성덕동의 면모를 보여준다.

관전 포인트

화랑의 후예들이 펼치는 태권도 공연

송정동

울창한 송림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이름 높은 마을로, 패들보드, 카이트 보딩 등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송정해변과 강릉커피거리를 품은 안목해변 등 관광명소들이 자리하고 있다.



송정과 안목해변의 해양레포츠와 강릉커피거리

길놀이 스토리

커피와 바다의 조합은 언제나 환영! 송정동 주민들은 강릉커피거리를 상징하는 바리스타로 변신해 강릉 시내를 커피 향으로 가득 채운다. 여기에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액티브한 연출까지 송정동의 매력을 아낌없이 보여준다.

관전 포인트

강릉커피거리의 원조격인 커피자판기의 등장

초당동

초당두부마을이라는 수식어를 가진 지역으로, 강릉을 대표하는 문장가인 허균과 허난설헌의 얼을 기리는 허균허난설헌기념공원을 비롯해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강문해변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부쩍 늘어났다.



초당의 선물

길놀이 스토리

초당동을 대표하는 두부와 바다, 솥대를 소재로 주민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과 역경, 자연 재해를 마주한 고난을 극복해 내는 과정을 그려냈다. 커다란 맷돌이 등장해 두부를 만드는 군무를 펼치고, 아이들이 솥대와 오리탈을 쓰고 등장해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퍼포먼스를 완성한다.

관전 포인트

천과 조명, 음향을 통한 극적인 연출력

옥천동

강릉에서 가장 변화한 중심지라는 수식어를 가진 마을로, 대창리 당간지주와 수문리 당간지주라는 보물을 품고 있다. 특히 천년의 수령을 자랑하는 은행나무는 옥천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주민들을 화합하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천년의 옥천동 은행나무와 함께 “강릉의 미래 세계화”

길놀이 스토리

지역을 굳건하게 지켜온 천년의 옥천동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은행나무 설화 속에 등장하는 호랑이와 노란 은행나무 잎을 형상화한 주민들이 평화, 화합, 희망, 번영의 의미를 담은 색색의 풍선을 들고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사위를 펼친다. 오랜 전통과 역사성을 토대로 강릉의 현재와 미래를 염원하는 옥천동 주민들의 마음을 담았다.

관전 포인트

은행알 모양의 사탕으로 행운 빌기

교2동

문화와 예향의 도시 강릉의 상징이자 지역 정신문화의 산실인 ‘강릉향교’의 전통을 오랫동안 지켜온 마을로, 교통의 요충지인 강릉역을 비롯해서 강릉명륜고등학교와 교동초등학교, 강릉 종합운동장과 올림픽파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전통과 사랑이 피어나는 곳

길놀이 스토리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교2동에 한 쌍의 부부가 도착했다. 향교에서 예를 익히고, 화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단옷날 복된 인연을 맺는다. 두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는 과정을 전통혼례 시연과 함께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고, 전통과 사랑이 피어나는 마을의 이야기를 전한다.

관전 포인트

도포 자락 휘날리는 유생들과 혼례복을 곱게 차려입은 신랑·신부의 자태

괴동

초·중고와 인근 대학교까지 강릉에서 제일 많은 학군을 보유한 교육의 중심지로, 신구 세대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마을이다. 김유신 장군을 모신 화부산사가 자리하고 있어 마을의 유서 깊은 전통과도 조화를 이룬다.



봄날의 추억과 미래세대

길놀이 스토리

봄이면 개나리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동네인 교1동 주민들이 봄소풍을 떠나는 설렘과 흥겨움을 담은 길놀이 퍼포먼스를 펼친다. 기성세대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 세대의 화합과 세대 공감, 화부산사에 깃든 김유신 장군의 기운으로 비상하는 강릉의 아이들, 그리고 이를 응원하는 주민들의 열정을 보여주고자 한다.

관전 포인트

강일여자고등학교 치어리딩팀인 '레너스'와 함께하는 멋진 군무

포남2동

춘갑봉에 위치한 소동산 봉수대를 주민의 손으로 직접 복원하고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마을로, 옛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소동산 봉수대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봉수대를 중심으로 하나된 포남2동의 열의와 자부심

길놀이 스토리

2010년에 최초로 실시한 강릉단오제 길놀이를 통해 그 존재를 알리기 시작한 소동산 봉수대는 마을 주민들의 열의와 자부심이 깃든 소중한 자원이다. 봉수대 거화 의식을 재현함으로써 강릉단오제를 축하하고, 난타 공연을 비롯해 판소리, K-POP 댄스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북돋는다.

관전 포인트

연기가 폴폴 올라오는 봉수대 조형물의 위용

홍제동

강릉의 관문으로 통하는 지역으로, 강릉단오제의 주신인 대관령국사성황신의 부인 정씨처녀가 신으로 모셔진 '국사여성황사'와 정씨처녀의 친정집 '경방댁'이 자리하고 있어 강릉단오제에서 큰 존재감을 발휘하는 마을이다.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이 첫 만남을 보낸 마을, 홍제동

길놀이 스토리

대관령국사여성황신이 된 정씨처녀의 설화를 새로운 퍼포먼스로 만나보는 시간! 호랑이를 매개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된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의 만남을 음악과 연출을 통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범일국사와 정씨처녀, 호랑이, 장자마리 등 설화 속 캐릭터들의 실사화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관전 포인트

부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자마리의 군무

내곡동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봉양한 효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효(孝)의 마을로, 남대천과 송림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이다. 신복사지 삼층석탑과 석불좌상을 간직한 지역이자, 가톨릭관동대학교가 소재한 교육의 중심지이다.



효를 바탕으로 장수하는 경로잔치

길놀이 스토리

마을의 지명유래를 바탕으로 진정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 마을에 거주하는 장수 어르신을 초청하여 경로잔치를 벌이고, 주민들이 다 함께 좋은 날을 축하하며 어우러진다. 대관령 기슭 암반수로 만들어 맛좋은 소주 브랜드가 잔치에 흥겨움을 더한다.

관전 포인트

동네잔치를 연상케 하는 흥겨움과 정겨움의 한마당

강남동

남산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도·농 통합 행정동으로, 강릉단오제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월화정과 다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한 마을이다.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사랑

길놀이 스토리

강릉에 전해지는 설화 중 하나인 무월랑과 연화낭자의 사랑 이야기는 명주군왕 김주원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된다. 두 남녀가 부부로 맺어진 건 연화낭자의 편지를 무월랑에게 전한 물고기의 활약 덕분이다. 월화정에 얽힌 천년의 러브스토리가 길놀이 퍼포먼스로 다시 태어난다. 벚꽃 만발한 풍경 사이로 펼쳐지는 로맨스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관전 포인트

사랑의 편지를 물고 나타난 대형 물고기

중앙동

현재의 시청 역할을 했던 대도호부관아가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행정과 상업의 중심이자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3개의 전통시장을 포함해 문화·교육·리뷰·금융·상업 시설이 밀집해있다.



강릉부사, 돌아오다

길놀이 스토리

조선시대 강릉을 다스리던 부사의 위엄 넘치는 행차가 시작된다. 의상부터 소품까지 전통 부사 행차의 행렬을 그대로 재현한 이번 퍼레이드는 대도호부관아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케 한다. 강릉시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면 과거의 부사님이 돌아와 지금의 발전된 강릉을 보고 즐거워하며 강릉시민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어준다.

관전 포인트

70여 명의 구성원이 펼치는 강강술래

포남1동

1990년대 강릉의 도심권 형성의 거점으로 성장한 마을로 강릉경찰서와 우체국이 자리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된 '용지'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용지각은 마을의 자랑으로 손꼽힌다.



용의 귀환

길놀이 스토리

물속으로 뛰어든 말이 용이 되어 승천했다는 용지각의 전설을 퍼포먼스로 표현함으로써 용처럼 위풍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뻗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냈다. 힘차게 비상하는 두 마리의 용들이 강릉단오제에 돌아와 관광객들에게 긍정의 기운을 전한다.

관전 포인트

화려한 조명으로 강릉 시내를 빛내는 용지각 조형물

경포동

강릉의 대표적인 휴양 관광지인 경포해변을 품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와 농촌, 어촌 등이 어우러진 곳이다. 또한, 관동 8경 중 제1경인 경포대와 오죽헌, 선교장 등의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어 자연과 문화, 역사가 잘 어우러진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여름 핫플 경포해변, 생동감 풀충전 GO!

길놀이 스토리

한여름의 낭만과 열정이 넘치는 경포해변을 다양한 소품과 의상으로 표현한 하이텐션의 퍼포먼스가 시작된다! 거대한 파도와 물고기를 형상화한 행렬은 경포해변의 여름을 관광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제 곧 다가올 여름의 향연을 미리 만끽해 볼 수 있다.

관전 포인트

미리보는 여름 해변 풍경

영산홍

편곡 이연희

♩=ca.148

[전주]

3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자자-영산홍

[다같이]

10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자자-영산홍

17 *mf*

1.영산홍-로봄바람-에가-지가지가 꽃피웠-네기화자자영산홍

- 2.꽃밭일-레꽃밭일-레사-월보름달 꽃밭일-레기화자자영산홍

29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얼-싸기화자자-영산홍

35 [간주] [다같이] *mf*

4

3.일-년-에한번밖-에못-만나는 우리연-분기화자자영산홍

- 4.가고파-라가고지-고어-서바빠 가자서-라기화자자영산홍

51 *f*

이 히야 - 헤 - 에 헤야 에헤이야

55 *rit.* *ff*

얼-싸기화자자-영산홍 얼-싸기화자자-영산홍

2025 강릉단오제와 함께합니다

